

숲이 아름다워 살기좋은 전남 50개 마을 선정

영암 장동·죽전·인곡, 강진 금당·보전·월남 마을 등 '숲속의 전남' 조사팀 꾸려 1년 작업 22개 시·군서 뽑아

어느 마을 숲이 아름다울까. 아름다움 숲이 있는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숲속의 전남> 회원들이 최근 전남 22개 자치단체의 숲이 아름다운 마을 50곳을 뽑았다. 각 자치단체가 추천한 마을 58곳을 전문조사팀을 꾸린 회원들이 돌아다니며 50곳을 엄선했다.

장흥 2곳, 강진 3곳, 영암 3곳, 광양 3곳, 진도 4곳 등으로 숲이 아름다운 마을이 많았다.

전문 조사팀에 참여한 <숲속의 전남> 이근배 사무국장, 이정금 문학박사, 이현영 숲해설가, 제갈대식 사진작가 등 4명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58개 마을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추천하고 싶은 마을을 정했다.

리스트에는 교통·경관·기반시설 등으로 나눠 시·군청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포장 도로는 몇 차로인지를 구분해 점수를 매기도록 했고 마을숲, 인근 계곡, 들과 산, 당산나무 등 특이경관, 마을규모와 가용 공간 등도 꼼꼼히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이장,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마을 유래, 역사, 문화, 풍수 등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숲이 아름다워 살고 싶은 마을 50선'이라는 책으로 낼 계획이다.

이들이 추천한 전남 지역 숲이 아름다운 마을을 소개한다.

◇영암, 장동·죽전·인곡마을=장동마을은 영암읍에서 차를 타고 20분 가량 걸리는 곳으로, 은적산에 둘러싸여있다. 80여가구에 150여명 중 65세 이상이 90% 이상으로, 마을 한 가운데 베풀고 있는 400년 넘는 배롱나무와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담장이 아름다운 마을로 소개했다.

월출산 자락에 등지를 튼 죽전마을의 돌담은 마을의 단합된 힘을 엿볼 수 있는 상징물로 꼽힌다. 군서면에서 1km 떨어진 마을의 돌담은 등록문화재(제 368호)로 지

정됐다. 회원들은 자연재해로 무너지거나 훼손되더라도 하면 주민 전체가 울력을 통해 다시 복구한다고 귀띔했다.

1970년대 심은 벚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면서 걷는 재미가 솔솔하고 숲이 아름다워 마을공동체와 마을회관도 공원 분위기를 느껴진다는 게 회원들 설명이다.

국사봉 기슭에 등지를 튼 인곡마을은 계곡이 깊고 물이 맑은 곳으로,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에 포함될 정도로 풍광이 좋아 찾아오는 등산객이 많다.

마을이 숲속에 형성된 만큼 계곡이 마을 한가운데로 관통하고 계곡 옆으로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 산책코스도 좋다.

◇강진, 금당·보전·월남마을=강진에서는 금당·보전·월남 마을을 추천했다. 금당마을은 강진 최고 명당으로 알려진 곳으로, 금당백련지, 다산 정약용의 삼남대로를 따라가는 남도유배길 3코스와 연결되는 마을이라는 점에서 탐방객들이 적지 않다. 금당백련지에 얽힌 전설과 사연도 눈길을 끈다.

보전 마을은 마을 뒤쪽으로 서기산과 연결된 산촌 마을이다. 서기산은 전국 10대 명품숲에 선정된 산으로, 20년 된 편백나무와 인근 4개 읍·면 주민들이 모여 숲관을 벌였다는 숲관마을, 마을을 관통하는 계곡, '강진에서 배고프고 힘들면 보전으로 가면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따뜻한 인심을 가진 마을이라는 게 회원들 설명이다. 강진읍에서 7km떨어진 월남마을은 여름에도 모기가 없는 청정 마을로 소개됐다.

◇장흥, 연동·평화마을=장흥 천관산 입구 왼편에 위치한 연동마을은 위쪽으로 천관산 등산로, 앞으로는 저수지와 오솔길, 당산나무 등 전형적 시골 풍경을 갖췄다. 마을 입구에 정남진수목원으로 이어지는 등 별거리가 풍성하다. 평화마을은 마을 앞의 넓은 호수, 그 주변에 메타세콰이



영암 죽전마을 돌담은 등록문화재로 마을의 단합을 엿볼 수 있는 상징물이다.



영암 인곡마을은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에 포함될 정도로 풍광이 좋다. <숲속의 전남> 제곡

어가 길게 서 있는 전경이 볼만하다. 굽은 팽나무, 느티나무, 굽은 대가 어우러진 오솔길을 걷다보면 마주치는 연못 송백정은 일본 정원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이외 <숲속의 전남> 회원들은 순천의 용오름·북다·석정마을, 곡성의 죽동·묘천마을, 해남의 어란·연동·방춘마을, 진도의 용호·죽림·남동·용장마을, 고흥의 흥연·용동·평촌마을 등을 '숲이 아름다워 살고 싶은 마을'로 추천했다.

<숲속의 전남> 김중옥 이사장(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인 회원들이 1년 가까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분석, '숲이 아름다워 살고 싶은 마을 50선'이라는 책을 내기 시작했다"면서 "마을에는 자랑거리가 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안내서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전봉헌기자 jbh@

장흥 고교생 美아이비리그 체험 해외연수

장흥인재육성장학회 7억7000만원 장학사업 확정

장흥지역 학생들을 위한 해외 체험 연수 기회가 마련된다.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및 해외 연수 등을 포함한 7억7000만원 규모의 10개 장학사업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성적 우수 중학생들에게 1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우수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억5100만원, 지역 고교생들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비전캠프 지원금 7200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장학사업의 효과 등으로 중학생들의 지역 고교

진학도 지난해 65%로 전년도(61%)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에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장학회는 또 지역 중학생들이 일제강점기 러시아지역 내 민족 거주지와 중국의 윤봉길, 안중근의사 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해외 역사탐방 사업도 추진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9년 설립된 뒤 군민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이달 현재 138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운영중이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광양시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광양시는 중동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이용객들을 위한 공영주차장(56면)을 추가로 조성, 20일 개장했다.

광양시는 지난 3월 8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 14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14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3억원으로, 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1610만원이 들어간 셈

이다. 이순신 대교 먹거리타운 일대는 140개소가 밀집, 전국에서 찾는 방문객들이 많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왔다. 주차장에는 야간 조명시설도 설치됐다.

먹거리타운 상가변영회 관계자는 "주차장을 추가로 개장에 상가 활성화에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광양희망도서관' 내달부터 정식 개장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 '광양희망도서관(조감도)'이 오는 30일 광양읍사무소 맞은편에 문을 연다.

희망도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들이 읽고 놀고 체험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책동굴, 동화구연체험방, 꿈나무극장 등을 갖췄고 친한경 제품으로 조성했다. 정식 개장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개관일에는 가상수족관 체험, 블럭 열쇠고리 만들기, 풍선아트 및 페이스페인팅, 작은음악회 공연 등이 펼쳐진다.

광양시 관계자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독서생활화와 학습 활동을 지원,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여수~순천~광양 광역시내버스 내달부터 운행 하루 5회, 기본요금으로 이용

내년 1월 1일부터 여수·순천·광양을 오가는 광역시내버스가 운행된다. 시내버스를 갈아 타지 않고도 여수와 순천·광양시를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여수·순천·광양 지역간 교류·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시

내버스 광역교통망 업무협약'에 따라 1월부터 3개 시를 잇는 시내버스 광역교통망이 본격 운영된다.

광역시내버스는 하루 5회 운영되며 광양에서는 광양시청~이순신대교~여수시청까지 가는 버스 270번, 여수~순천을 오가는 버스는 330번 960번, 여수에서 광양으로 가는 버스 610번 등이 새로 운행된다.

또 광양~순천 간 시내버스(77, 777, 94, 95, 96, 99, 99-1)는 기존 노선·횡수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요금(현금 이용시 1350원)만 내면 오갈 수 있다. 다만, 광역교통망으로 환승시스템이 시행될 때까지 기존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광양~여수 간 광역시내버스를 이용한 뒤 여수나 광양 시내버

스로 환승할 때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여수·순천·광양 간 광역시내버스 운행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 뿐 아니라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는 광역무료환승제의 경우 광역무료환승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6월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경기도 양평, 여수 거문도, 전원주택토지 투자 하실분!

문의.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010-3605-5000